

한국 섬유 산업 리포트

- 활력 넘치는 프리뷰 인 서울 소개 <2/3>

◎ 소재 메이커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텍스타일 시장의 경기가 회복되자 한국의 합섬이나 방직 등 소재 메이커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합섬 메이커의 활기는 놀랄 정도이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증설까지 결심한 합섬 메이커도 나타났다.

한국의 큰 합섬 메이커인 효성(曉星)은 2010년 7월에 500억 원을 투자하여 구미 공장에 월산(月産) 3,000 톤의 폴리에스터 장섬유 제조 플랜트(polyester 長纖維 製造 plant)를 새로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 상반기 중에는 가동을 개시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 공장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설비와 합하여 월산 1만 2,000 톤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되어 한국 국내 생산량에서 제 1위의 든든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울산 공장의 폴리에스터 중합 설비도 늘리고 있다. 2011년 8월에 완성될 예정이며 울산 공장은 PET칩(polyethylene terephthalate chip)의 년산(年産)이 16만 톤 체제로 된다. 이쪽은 실·숨의 용도 뿐만 아니라 타이어 코드(tire cord)와 필름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회사의 나일론·폴리에스터 부문장은 “이번의 증설로 한국 국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미의 프리미엄 시장을 빠르게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브랜드력을 높여 글로벌 브랜드와도 직접 거래를 늘려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적극적이다. 속건사(速乾絲)인 ‘에어로 쿨(Aero-cool)’, 마이크로 파이버(microfiber)인 ‘m2’, 복합 기능사(複合機能絲)인 ‘아스킨’, 리사이클사(recycle絲)인 ‘리존’ 등의 차별화 소재를 널리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효성의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오랜만의 국내 설비 증설이라고 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소재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휴비즈가 내놓은 분산 염료로 염색할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이다. 이 회사에서는 ‘XN’ 브랜드로 장섬유, 단섬유, 방직사

를 생산하고 있다. 원래 경량성이나 보온성, 제직이나 편성에 역점을 두어 개발한 흡한 속건성이 좋은 PP섬유이다. 실제의 성능은 우선 접어놓고 어쨌든 염색성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한국의 제직업이나 방적의 텍스타일 부문이 스포츠용 직물이나 편물로 활용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방적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삼일 방적(三一 紡績)은 이번에 난연 소재의 종합 브랜드인 ‘네바란’을 발표하였다. 난연 레이온인 ‘렌쟁 FR’이나 ‘아라미드 섬유’, 모다크릴(modacril)을 활용한 것이다. 2010년의 프리뷰 인 서울(PIS)에도 5년 만에 출품하였으며 앞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제안하겠다고 하였다. 이 회사는 휴비즈의 XN을 사용한 스포츠 소재도 새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의 기세에는 일본도 전혀 인연이 없지는 않다. 일본에서는 별로 화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니클로(UNIQLO)와 효성이 밀월 관계(蜜月 關係)를 맺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큰 수요가(需要家)가 되어 있다. 한국의 소재 메이커나 제직 업자들로부터는 이도추 상사(伊藤忠 商事), 미쓰이 물산(三井 物産), 미쓰비시 상사(三菱 商事), 초리(蝶理), 가네마쓰 섬유(兼松 纖維)와 같은 이름들도 매우 자주 들리고 있다.

일본의 소재 메이커가 섬유의 일본 국내 생산을 줄여간 것에 비례하여 일본으로의 소재 공급원으로서 한국의 존재가 클로즈-업 되고 있다. 특히 합섬 분야에서는 이제까지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차별화 고부가 가치의 실이나 생지의 개발이나 판매에서 한국세가 그 지위를 넘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